

GLOBAL DEFENSE NEWS

지휘통제·통신 미 특수작전사령부, 비아셋사와 첨단 통신장비 개발 추진

기 동 호주, 이라크에 시험용 고기동방호차량 호케이 배치

함 정 미국, 핵탄두 탑재 가능한 러시아의 수중드론 실체 인정

항 공 중 공군, J-20 전투기 훈련비행 시작

화 력 러시아, 치장 중이던 대구경 박격포 및 자주포 운용 착수

방호·유도무기 미 해군, 연안전투함에서 함대함 미사일 모듈 시험 준비 중

전재인용시 출처가 '국방과학기술품질원'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국방기술품질원 방산정보팀은 <Global Defense News>, 「국방과학기술정보」誌로 전 세계 국방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.

◎인터넷망

<http://www.dtaq.re.kr/ko/doc/technical.jsp>

◎국방망

<http://www.dtaq.mnd.mil/ko/doc/technical.jsp>

미 특수작전사령부, 비아셋사와 첨단 통신장비 개발 추진

GLOBAL DEFENSE NEWS

지휘통제·통신

감시정찰

기 동

함 정

항 공

화 력

방호·유도무기

전력지원체계

- 미국 특수작전사령부(USSOCOM)가 글로벌 통신업체인 비아셋사와 첨단 통신장비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3억 5,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음. ※ USSOCOM: United States Special Operations Command
 - 지상/공중 상황인식, 전술 데이터 링크, 지상 네트워크, 정보·감시·정찰(ISR), 전술 위성통신, 정보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사이버보안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
 - 특수작전부대를 위한 새로운 작전개념을 지원하고, 상황인식을 개선하며, 우군피해를 방지하고, 작전임무 효과를 개선
- 이동식 네트워킹, 사이버 보안, 광대역 위성통신기술 부문의 빠른 발전을 감안한 융통성 있는 계약 방식을 통해, 광범위한 새로운 작전능력을 빠르게 획득, 운용, 발전시킬 수 있음.
 - 현재 군의 전술 네트워크를 현대화하려는 취지와 부합되고, 다중영역 전투공간의 복잡한 요구조건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술체계를 구비한 현대식 네트워크를 보유
 - 현재 운용 중인 체계의 융통성을 개선하여 이동식 네트워킹, 정보기술, 사이버 보안, 광대역 위성통신 관련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



비아셋사 첨단 통신장비 능력 이미지

호주, 이라크에 시험용 고기동방호차량 호케이 배치

- 호주 국방부가 종합시험의 일환으로 작전지역 배치·철수와 유지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이라크 타지 군사기지에 육군 4x4 경(輕) 고기동방호차량 호케이(Hawkei) 2대를 배치하였다고 1월 13일 밝힘.
 - 육군은 시험 결과를 토대로 작전 환경에 최적의 차량 배치 방안을 수립하며, 2019년 양산에 앞서 점검
 - 호주 군이 호케이 1,100대를 9억 1,000만 달러에 획득하여, 비방호차량 랜드로버 대부분을 대체할 예정이라고 2015년 10월 5일 발표
- 호케이는 방위산업부와 호주 탈레스사 협력으로 엄격한 설계·시험·평가 과정을 거쳐 상당한 폭발과 탄도 위협을 견디도록 방호기술을 적용하여 설계됨.
 - 4도어 버전에서 최대 6명, 2도어 버전에서 최대 3명이 탑승하며, 200kW 출력의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최고속도는 115km/h, 항속거리 600km
 - 파생형은 병력수송용, 지휘통제용, 연락용, 감시·정찰용, 전자전용
 - 현재 7개 국가에 도입되어 국제적인 성공을 거둔 호주 탈레스사의 부시마스터 차량에 기반



경(輕) 고기동방호차량 호케이

미국, 핵탄두 탑재 가능한 러시아의 수중드론 실체 인정

○ 미국 국방부가 핵태세검토서(NPR) 초안을 통해 러시아에 핵탄두 탑재 가능한 수중드론이 실존한다고 밝혔음.

※ NPR: Nuclear Posture Review

- 이 수중드론은 100 메가톤급 핵탄두를 장착하고 오스카급을 포함한 2종의 잠수함에서 전개 가능하며, 정식 명칭은 해양다목적체계 스테이터스-6(Ocean Multipurpose System Status-6)

• 100 메가톤은 2차 세계대전 중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6,500배 규모

- 이 수중드론의 실전배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, 적어도 1번은 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

○ 이 수중드론은 핵잠수함에 4대를 동시에 탑재 가능하며 루빈설계국이 제작하였음.

- 러시아 TV에 보도된 문서에 따르면, 이 드론의 항속거리는 6,200마일, 최고속도는 56kt 이상, 잠항심도는 약 1,000m

- 미국은 러시아가 신기술 시험 시 사용하는 사로프급 잠수함에서 이 수중드론이 전개되었음을 탐지

• 미국은 핵전력 삼각체계(Nuclear Triad)를 탄도미사일잠수함, 대륙간 탄도미사일, 전략 폭격기로 구성



중 공군, J-20 전투기 훈련비행 시작

○ 중국 공군이 CAC사가 개발한 5세대 전투기 J-20 초도기가 참여한 합동 전투훈련을 실시하였음.

- J-20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, 2017년 초도생산기가 공군에 배치되어 운용능력을 시험 중
- 이 훈련비행은 초도운용능력 시험의 일부로서 J-16, J-10C 등의 항공기와 가시선 밖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실시
- 곧 1차 배치를 위한 양산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

○ J-20 전투기의 초도운용시험이 완료되면, 세계에서 3번째이자 아시아에서 1번째로 전력화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기록됨.

- 초기 시제기의 전방형상은 미국 F-22와 유사한 스텔스 특성이 있으나, 측면과 엔진노즐은 레이더탐색에 취약할 것으로 평가되어 설계를 보완
- 현재 J-20A는 후연기 사용 시 추력 140 kN인 WS-10G 터보팬엔진 2기를 장착하고 있으며, 차후 J-20B는 후연기 없이 추력 140kN으로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엔진으로 교체생산 계획
- 최대속도 마하 1.72로 단·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, 정밀유도폭탄 등으로 무장



J-20 전투기

러시아, 치장 중이던 대구경 박격포 및 자주포 운용 착수

○ 러시아군이 2017년 하반기부터 장기간 치장 중이던 240mm 2S4 툄판(Tyulpan) 자주박격포와 203mm 2S7 피온(Pion) 자주포를 정비하고 소규모의 성능개량을 진행한 후 야전부대에 배치함.

※ MRL : Multiple Rocket Launcher

- 두 체계 모두를 장기간 치장 상태에서 해제하여 종합적인 점검 작업을 수행한 후, 현대식 통신 및 항법장비를 장착하고 사격통제체계를 개선하는 소규모 성능개량을 진행

• 구형 체계를 복귀시킨 것은 차세대 152mm 2S35 코리차-SV 자주포의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포병화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판단

○ 두 체계 모두 1970년대 소련군에 도입되어 아프가니스탄전과 체첸전에서 사용되었으며, 1990년대까지 운용됨.

- 2S4 툄판의 사거리는 130kg 중량의 고폭탄의 경우 9,650m이나, 사거리 연장탄 발사 시 20,000m로 증대, 핵탄 사격 가능

- 203mm 피온 자주포의 사거리는 110kg 고폭탄의 경우 30km이나, 사거리 연장탄 발사 시 47km, 핵탄 발사 가능

• 그루지아군(2008년) 및 우크라이나군(2014년)은 피온 자주포를 전투에서 운용



240mm 툄판 자주포 훈련장면

미 해군, 연안전투함에서 함대함 미사일 모듈 시험 준비 중

GLOBAL DEFENSE NEWS

지휘통제·통신
감시정찰
기 동
함 정
항 공
화 력

방호·유도무기

전력지원체계

○ 미국 해군이 2018년에 연안전투함에서 함대함미사일모듈(SSMM) 시험을 완료하기 위해 준비 중임.

※ SSMM: Surface-to-Surface Missile Module

- 미 해군은 2018 회계연도부터 SSMM을 생산하여 2020 회계연도에 첫 번째 생산품을 납품할 예정
- ↳ SSMM 조달은 2023 회계연도에 완료될 계획

○ SSMM은 연안전투함이 다수의 군집 해상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미 육군의 AGM-114L-8A 롱보우 헬파이어 미사일을 함상에서 수직발사하기 위한 모듈임.

- SSMM 구조시험은 지난 2017년 2월 디트로이트함에서 수행
- 현재까지 개발 및 운용시험 이전 단계의 SSMM 시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함.
- ↳ 미사일 24발을 발사하여 20발이 교전에 성공함으로써 83%의 성공률을 기록
- 교전에 실패한 4발은 운용영역의 경계조건에서 발사되었으며, 이는 미사일의 성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



롱보우 헬파이어 미사일 발사 (2017년 2월)